즉시 배포용: 2024년 6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난민들의 취업과 유지를 돕기 위해 2,000만 달러 지원 발표

최근 재정착한 난민들이 뉴욕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

*지난해 약 **4,200**명의 난민이 뉴욕주에 재정착*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난민들이 뉴욕의 새 집에 적응하는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17개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2,0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난민 재정착 사무국(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의 자금 지원을 받는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Refugee Support Services Program)은 계속해서 뉴욕 전역의 지역사회에 난민을 재정착시키려는 주의 성공적인 노력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폭력으로 인해 난민이 되거나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난민 지역 사회를 고양시킬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에 가져올 가능성과 약속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나타낼 것입니다."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적, 문화적 적응, 구직 기술, 직업 경험, 영어 능력 등 취업 장벽을 해결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발전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난민 서비스국(Refugee Services Bureau)은 뉴욕주에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구현을 담당합니다. 연방 자원은 난민과 그 가족, 그리고 유사한 이민 신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도록 돕는 지역 기관에 전달됩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Barbara C. Guin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유산은 해외에서 박해, 폭력, 불관용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도우려는 우리의 의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들 개인과 가족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우리 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alter T. Mosley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폭력과 박해를 피해 도망친 개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는 난민과 이민자들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고 있으며, 국무부 새 미국인 사무국을 통해 이들이 이곳 우리 주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2,000만 달러 지원금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난민들이 오늘날의 취업 시장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전역의 17개 비영리 난민 서비스 제공업체는 최근 재정착한 난민과 그 가족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받았습니다. 수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뉴욕시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Archdiocese of New York – 뉴욕시, 802,400달러
Shorefront YM-YWHA of Brighton-Manhattan Beach Inc., 1,469,300달러
CAMBA Inc., 400,000달러
Center for Family Life in Sunset Park Inc., 548,679달러
El Barrio's Operation Fight Back Inc., 410,000달러

롱아일랜드
Catholic Charities of Long Island, 288,500달러

미드 허드슨
Catholic Charities Community Services, Archdiocese of New York – 메트로, 333,500달러

수도권 지역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Inc., 1,784,700달러
Albany County Opportunity Inc., 342,566달러

서던 티어
American Civic Association Inc., 148,742달러

웨스턴 뉴욕
Journey's End Refugee Services Inc., 2,559,604달러
Jewish Family Services of Western NY – Buffalo, 2,724,000달러
Jewish Family Services of Western NY – Niagara, 148,741달러

핑거 레이크스
Catholic Charities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1,423,427달러

Rochester City School District, 1,000,000달러

모호크 밸리
The Center, 1,560,000달러

센트럴 뉴욕
Catholic Charities of Onondaga County, 4,055,841달러

뉴욕주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4,200명의 난민 또는 특별 이민 비자를 받은 개인을 환영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업스테이트 지역사회에 재정착했습니다. 이들 난민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991명,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912명, 시리아 출신 717명, 버마 출신 541명, 콜롬비아 출신 12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난민은 미국으로 여행할 때 가장 면밀히 조사되고 조사되는 자들입니다. 난민들은 자신들이 정착하기 전에 생체 인식 테스트, 건강 검진, 미국 국토안보부 공무원과의 직접 인터뷰 등 정보 기관의 수많은 보안 점검을 받습니다.

자료 New American Economy의 연구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난민들은 소득자, 납세자, 소비자로서 주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가구는 연간 약 62억 달러를 벌고 연방, 주, 지방세로 약 20억 달러를 기여합니다.

WNY 유대인 가족 서비스(Jewish Family Services)의 Molly Carr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JFS는 난민 성인과 청소년이 자급자족을 추구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장애물을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의미 있는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민 중심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국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취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인 및 가족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난민들이 재정적, 개인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을 더 잘 안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 협회(American Civic Association) 전무이사 겸 CEO인 Hussein Adam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39년 이래로 Binghamton에 있는 미국 시민 협회(American Civic Association, ACA)는 전 세계에서 온 신규 이민자들에게 이민 지원 서비스를 자랑스럽게 제공해 왔습니다. ACA는 이 상을 주신 Hochul 주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신규 이주자들에게 경제 개발, 포용 및 자급자족을 향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재정착과 통합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달성되고, 지역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이 됩니다. ACA에서는 새로운 미국인들이 번영할 때 우리 모두가 번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욕주를 화목한 주로 만드는 데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신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Brighton-Manhattan Beach Inc.의 Shorefront YM-YWHA 전무이사 Susan Fox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horefront YM & YWHA는 NYS OTDA 및 협력 파트너와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난민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전념하는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Refugee Support Services Program, RSSP)을 구현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RSSP는 장벽을 식별하고 극복하며 성공적인 취업 알선, 직업 유지 및 가족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수천 명의 난민의 희망과 꿈을 반영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안전하게 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 공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탈출한 난민들의 특별한 노력과 인내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받습니다."

로체스터 시 학군의 성인 및 직업 교육 서비스 담당실 Lia Tinkelman Festenstein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RSSP 수상자가 되어 깊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표창은 RCSD OACES 팀 전체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난민 가족의 경제적 궤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가족이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자선단체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가족 번영 프로그램 Jim Morris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CCFCS의 이미 성공적인 난민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역 로체스터 지역에 100명 이상의 고용주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370명 이상의 난민을 지역 일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 기관에 취업한 난민 중 절반 이상이 취업 후 90일 이내에 자립했습니다."

Alban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의 Neenah A. Bland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lbany Community Action Partnership은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OTDA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모든 올버니 카운티 주민들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욕 대교구 가톨릭 자선단체(Catholic Chari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 York) Kevin Sulliva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자선단체는 난민, 망명 및 인도주의적 가석방 허가를 받은 자, 인신매매 피해자 등 뉴욕에 새로 온 사람들에게 고용 및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주와의 파트너십을 계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뉴욕시와 로워 허드슨 밸리에 도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집에서 삶을 통합하고 재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규 이민자와 난민들은 우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강화합니다."

센터의 전무이사인 Shelly Callah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오네이다 카운티의 난민 커뮤니티와 인력을 늘리는 많은 고용주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센터는 RSS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하고, 지역 사회에 통합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매년 수천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건설과 경제적 회복력을 위한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뉴욕주를 자신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천 명의 난민을 환영해준 뉴욕주(NYS)와 Hochul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

Sunset Park의 가족 생활 센터 Julia Jean-Francois 공동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set Park에 있는 가족 생활 센터는 뉴욕주 임시 장애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Disability Assistance)이 시행하고 있는 뉴욕주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브루클린의 난민과 그 가족에게 취업 지원은 물론 사회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의 활기찬 지역사회에 새로운 뉴욕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밝은 미래를 위한 그들의 결단력, 추진력, 희망 및 꿈을 우리 시에 가져오고 우리는 난민들과 그 가족들이 강하고 회복력 있는 뉴욕을 위해 매일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논다 카운티의 가톨릭 자선단체 사무총장 Michael Melar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 대상이 되어 영광입니다. 이는 난민을 지원하고 그들이 삶을 재건할 때 환영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호철 주지사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CAMBA, Inc.의 사장 겸 CEO인 Valerie Barton-Richard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서 CAMBA는 난민 봉사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받는 주 전역의 17개 제공업체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뉴욕주에 막대한 가치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미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우리는 직접 취업 알선, 자급자족을 위한 유지 지원 등 필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난민들이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롱아일랜드 가톨릭 자선단체 CEO Michael Smith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가톨릭 자선단체의 우리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도록 영감을 주며 각 사람은 존경과 존엄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난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개인과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협력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을 향상시키면서 자급자족을 가져오는 직업 훈련 및 서비스 통합을 제공합니다. 지역적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